

경주 황룡사지[慶州 皇龍寺址] 황룡이 나타난 신라의 국찰(國刹)

553년(진흥왕 13) ~ 미상



1 개요

경주 중심지에 위치한 사적 제6호 황룡사지(皇龍寺址)는 진흥왕(眞興王, 재위 540~576) 때 완공된 황룡사의 옛터이다. 황룡사는 진흥왕, 진지왕(眞智王), 진평왕(眞平王), 선덕여왕(善德女王) 등 4대 왕에 걸친 대규모 불사(佛事)를 통해 국찰(國刹)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황룡사는 553년(진흥왕 14) 착공 때부터 1238년(고려 고종 25년) 몽골 군대에 의해 소실될 때까지 오랜 기간 유지된 신라 최대의 사찰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문헌 기록을 통해 황룡사의 창건부터 소실까지 발생한 재해와 중수 내력, 목탑의 구조 등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황룡사 구층 목탑 찰주본기(皇龍寺 九層木塔 刹柱本記)」를 통해 872년의 황룡사 9층 목탑 중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황룡사지는 1976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사찰의 구조와 변천이 밝혀졌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황룡사의 창건과 불교적 이상군주를 추구한 진흥왕

황룡사는 진흥왕 때에 완공된 흥륜사(興輪寺)와 함께 진흥왕의 불교치국(佛敎治國) 정책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건축물이다. 경주의 중심지에 위치한 황룡사는 본래 진흥왕이 궁전을 지으려고 한 건물의 용도를 사찰로 변경하여 완공된 것이다. 이후 574년(진흥왕 35)에 크기가 1장(丈) 6척(尺)인 장육불상(丈六佛像)이 조성되고 584년(진평왕 6)에 황룡사에 부처를 모시는 전각인 금당(金堂)이 새롭게 완공되었다. 645년(선덕여왕 14)에는 총 높이가 약 80m인 황룡사 9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4년 조의 기록이 주목된다. 이는 533년 진흥왕이 월성(月城) 동쪽에 새로운 궁전을 짓는 도중에 황룡(黃龍)이 나타나자 왕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 건물을 절로 고쳐 짓고 황룡사라 하였다는 기록이다. [관련사료](#)

월성 동쪽은 신라의 신성한 7개의 절터 가운데 하나로, 『삼국유사』 「아도기라(阿道基羅)」에 자세한 내용이 전해진다. 여기에서 아도(阿道)는 신라에 불법을 전하러 오기 전에 그의 어머니인 고도녕(高道寧)에게 전불시대(前佛時代), 즉 현재의 부처인 석가모니와 그 이전에 출현한 부처들이 있었던 시대에 경주 안에 7개 절의 터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 가운데 신라 월성의 동쪽에 용궁이 있고, 바로 이 용궁의 남쪽에 황룡사가 세워졌다. [관련사료](#) 신성한 7개의 절터에 대한 기록은 신라인들의 불국토(佛國土) 사상과 연관되는데 이것은 신라가 본래 오래전부터 부처가 계신 땅이었다는 관념을 나타낸다. 신성한 땅에 황룡사가 창건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이 사찰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신라 최대의 사찰이었던 황룡사의 창건 배경은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황룡사지 기반의 토양 상태, 사찰 주변의 토목공사 흔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래 황룡사가 건립된 땅은 범람지(氾濫地)였기 때문에 황룡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범위한 영역의 땅을 다지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현재 황룡사 남쪽 남문 앞에는 대규모 광장 유적과 함께 서쪽으로는 동궁과 월지, 동쪽으로는 명활산성까지 동·서쪽으로 뻗은 대형 도로 유적이 확인된다. 황룡사 앞 도로 유적의 남쪽에는 도시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담장이 있는 작은 건물들이 다수 건립되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유적들은 자갈과 흙을 여러 층으로 다져 쌓은 땅 위에 건설되었다. 황룡사 주변 도로와 건물 등을 건설한 대규모의 토목공사는 사찰의 건립과 함께 황룡사 주변 일대의 새로운 시가지 건설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토목공사에는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작업에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당시 대규모의 사찰 창건 공사를 진행하고 불상을 조성하는 것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생각되는 진흥왕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흥왕은 법흥왕(法興王)이 지니고 있었던 전륜성왕(轉輪聖王) 사상을 계승하며 불교적 이상군주로서 신라에 정법(正法) 왕국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그의 이름이 사미(沙彌) 또는 승가(僧伽)를 뜻하는 삼맥(三麥)이고 태자들의 이름이 전륜성왕을 의미하는 동륜(銅輪), 금륜(金輪)이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그의 행적이 불교를 숭상하며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쇼카왕의 행적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선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하며 건립한 순수비(巡狩碑)는 아쇼카왕이 정복 지역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건립한 석주(石柱) 및 마애법칙(磨崖法勅)과 유사하다. 또한 진흥왕이 만년에 출가하여 승려로서 사원에 머문 모습도 경전에 전해지는 아쇼카왕의 행적과 유사하다.

신라의 3가지 보물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진 황룡사의 장육불상도 아쇼카왕과 관련이 깊다. 『삼국유사』 「황룡사장육(皇龍寺丈六)」에 의하면 이 불상은 진흥왕이 아쇼카왕에게 받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진흥왕은 불상 조영에 실패한 아쇼카왕의 숙원을 성취하였다고 한다. 즉 장육

불상의 연기설화(緣起說話)를 통해서도 진흥왕이 지니고 있었던 전륜성왕 의식이 확인되는 것이다.

[관련사료](#)

3 선덕여왕의 황룡사 9층 목탑 건립과 일탑삼금당의 가람배치

황룡사 9층 목탑은 645년(선덕여왕 14)에 자장(慈藏)의 건의로 건립되었다. [관련사료](#) 문헌 기록에 의 해 탑의 높이는 약 80m로 추정된다. 탑의 건립을 위해 당시 백제의 장인인 아비지(阿非知)가 신라로 초청되었고 김용춘(金龍春)이 신라 장인 200여 명을 인솔하였다. [관련사료](#) 『삼국유사』 「황룡사구층탑(皇龍寺九層塔)」에 기록된 목탑의 창건 배경을 살펴보면, 자장이 중국 당(唐)을 유학할 당시의 내용이 전해진다. 신인은 자장에게 황룡사의 호법룡(護法龍)이 본인의 큰아들인데 범왕(梵王)의 명령을 받고 황룡사에 가서 절을 보호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어서 신인은 신라에 돌아가 황룡사 9층 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들을 항복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관련사료](#) 이 기록을 바탕으로 자장이 외적의 침입을 막고 삼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목탑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주목할 점은 자장이 중국을 유학한 시기가 수(隋)·당(唐) 교체기인 당 태종(太宗, 재위 626~649) 때라는 것이다. 이 시기 중국 장안(長安)에서는 여전히 수의 문제(文帝, 재위 581~604)가 실시한 불교 정책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어 자장이 그의 불교 정책을 견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륜성왕을 모델로 하여 다수의 사리탑을 건립한 수 문제의 불교 정책이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 배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된다. 중국 당의 도선(道宣, 596~667)이 지은 『속고승전(續高僧傳)』에 의하면 자장은 각 지방에 많은 사리탑을 건립한 문제와는 다르게 소수의 사리탑만 건립하였다. 하지만 자장은 분명히 사리탑을 건립하였고 이는 신라의 국찰인 황룡사에서 목탑 건립으로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여기에는 자장이 수 문제의 사리탑을 모델로 하여 선덕여왕도 부처의 사리를 지킬 만한 전륜성왕의 후예라는 것을 내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의도를 바탕으로 건립된 황룡사는 가람배치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창건가람, 중건가람, 최종가람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황룡사의 창건가람은 동시기에 건립된 백제의 사찰들과 마찬가지로 중문과 목탑, 금당, 강당이 일렬로 늘어서고 회랑으로 감싼 일탑일금당(一塔一金堂)의 형태였다. 중건가람 이후의 가람배치는 목탑 위쪽에 세 개의 금당이 일렬로 늘어선 일탑삼금당(一塔三金堂) 형태로 변화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일반적으로 일탑삼금당 형식은 세 개의 금당이 동과 서, 북쪽에서 목탑을 둘러싸는 배치이지만 이 시기 황룡사의 일탑삼금당 형식은 금당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금당-중금당-동금당의 순으로 일렬로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고구려 계통의 3금당식 가람에서 발전·변화된 형태라고 이해된다.

4 국찰로서 황룡사의 역할과 그 퇴락

황룡사에서는 대규모 호국(護國) 법회가 거행되었다. 여기에서는 백고좌회(百高座會)와 팔관회(八關會)가 거행되어 호국을 기원하는 국찰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법회에는 역대 왕들이 친히 행차하여 참석하기도 하였다. [관련사료](#) 백고좌회와 팔관회는 고구려에서 신라로 귀순한 혜량(惠亮)이 황룡사에서 신

라 최초로 개최하였다. [관련사료](#) 원광(圓光), 안홍(安弘), 자장, 원효(元曉) 등 많은 고승이 황룡사에 머무르면서 경전을 강독하는 강경(講經)을 행하기도 하였다. [관련사료](#) 이 고승 중에는 황룡사의 주지를 맡으면서 신라 불교계의 최고 통솔자인 국통(國統)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련사료](#) 이를 통해 당시 황룡사가 신라 불교계와 승려를 관리하는 중추적인 기구로 기능하였다고 이해된다. 황룡사의 위상과 관련하여 754년(경덕왕 13)에 만들어진 황룡사 종의 시주자가 경덕왕의 전 부인인 삼모부인(三毛夫人)이었다는 기록이 있어 흥미롭다. 이 종은 성덕대왕 신종보다 약 4배가 컸다고 전해진다. [관련사료](#) 이 기록을 통해 당시 황룡사 종을 주조할 수 있었던 왕실 외척의 막대한 경제력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시기별로 중수를 거듭한 황룡사가 폐사(廢寺)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황룡사 9층 목탑은 645년(선덕여왕 14)에 건립된 후 1238년(고려 고종 25년)에 몽골 군대의 침입으로 소실될 때까지 수 차례 중수가 거듭되었다. 그중에 주목되는 기록은 보물 제1870호에 지정된 「황룡사 9층목탑 찰주본기」로, 이 사료를 통해 871년(경문왕 11) 중수된 탑의 수리 경위와 탑의 연혁을 확인할 수 있다. 찰주본기가 새겨진 사리내함(舍利內函)은 사리외함(舍利外函)에 담겨져 목탑의 심초석(心礎石) 안에 보존되었다. 이후 사리함은 1964년에 도굴되었다가 1966년에 되찾아 경주국립박물관에 수장되었다. 주목해야 할 내용은 찰주본기의 전반부에 기록된 탑의 창건 연기 설화에서 자장이 당에 유학을 떠난 연도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찰주본기의 후반부에는 9층 목탑을 중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전(成典)의 관직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를 활용하여 왕실에 의해 건립된 사원이나 궁성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관청인 성전사원(成典寺院)의 구성과 운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사료](#)

고려시대 이후에 목탑은 벼락으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가 중수되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1238년에 몽골 군대의 침입으로 탑과 절, 장육존상, 전각이 모두 불타버린 뒤에는 끝내 다시 중수되지 못하였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고려 말 문인 김극기(金克己, 1379~1463)의 시에는 황룡사 9층 목탑의 층계를 올라가서 경주의 경치를 조망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황룡사가 불에 타기 직전의 모습을 알려주는 기록으로 황룡사의 원형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관련사료](#)